

로컬뉴스



부안위도면 공영버스 9년만에  
신차로 탈바꿈 7일 첫 운행

고송도치 섬 부안군 위도면 공영버스 새 차가 7일 첫 운행에 들어가 위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락하고 편안하게 천하의 절경을 맛보게 됐다.

위도면 공영버스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운행해온 버스를 9년 만에 신차로 교체·운행하게 됐다.

새로 구입된 공영버스는 40인승 최고 사양의 버스이며 푸른 바다와 대조적인 빨간 색 버스로 앞으로 위도 주민 및 관광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부안군은 총 1억62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구입해 위도 공영버스 운영사업자인 위도면사무소에 관리 전환했으며 위도면사무소는 버스 운영을 통한 1800만원의 적립금으로 음향시설 및 코팅, 커튼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했다.

위도 공영버스 위탁사업자인 백은기씨는 "신차 운영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위도 주민 및 관광객에게 고품질 교통서비스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도 공영버스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육교 재가설 국비확보 순조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공사 국비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제시는 7일 국회 김중희 의원, 국토교통부 구분환 철도안전정책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계영 시설본부장, 이견식 김제시장 등 관계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 E등급인 김제육교(과선교)의 붕괴 위험성과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김제육교 현장을 방문한 참석자들은 김제육교 재가설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철도청이 1985년 준공하여 김제시에 인계한 호남선 철도횡단 김제육교(과선교)는 종단구배가 8%로 시설기준(5%) 미달이며 2011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성 E등급 재난위험시설로써 2014년 9월부터는 차량통행 제한까지 실시하고 있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재난 사고 위험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로서는(현재 10.29%) 시 자체 예산만으로 재가설은 꿈도 꾸지 못하여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가설에 따른 국비지원을 건의한 결과 2012년에 국비지원 근거(철도안전법 개정)가 마련되었으나 부처 간 이견과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하여 국비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임성근 건설과장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김제육교 재가설공사가 국비지원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김제가교 LED가로등 설치

김제시(시장 이견식)는 전주에서 김제시로 들어오는 관문인 김제가교(순동) 일대에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최신 LED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산 1억원을 투입하여 김제가교 일대에 24본의 LED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김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관문 입구에서부터 아름다운 도로 조명의 볼거리와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 등 김제가교 일대를 대낮처럼 환하게 탈바꿈시켰다.

순병섭 도시재생과장은 "김제의 관문에 LED가로등 설치로 전주~김제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밝고 활기가 넘치는 김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공식포스터 확정

벽골제 쌍룡으로 형상화·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농악 상쇠 표현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의 공식 포스터가 확정됐다.

이번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포스터는 18회를 이어오면서 지평선축제가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축제의 상징인 벽골제 쌍룡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지평선축제가 그간 걸어온 길을 18년간 축제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공식 포스터를 나열하여 나타내주고자 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농악의 상쇠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농경문화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표현하고 있다.

올해로 제18회를 맞는 김제지평선축제는 1999년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문화제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축제 포스터

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자리에 오르며 현재까지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한민족의 근간인 「농업」과 무형의 「지평선(Horizon)」을 아이템화하여 산업화의 흐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전통농경문화를 현대대의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을 말처럼 전통농경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번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포스터에 담았다.

이견식 김제시장은 "이번 김제지평선축제 공식 포스터를 통해 대한민국 전통농경문화에 대한 18년간의 김제시민의 노력을 포스터에 투영하고자 하였으며, 이제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5년 연속 대표축제 도약과 글로벌축제 도약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 축제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인에게 기억에 남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기적의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캠프' 1박2일 독서캠프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http://jmlib.jeongeup.go.kr/)를 참고하거나 ☎063.539-645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기적의도서관, 여름방학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정읍기적의도서관이 올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적의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1박2일 독서캠프를 비롯하여,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매년 가장 인기 있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는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한다. 참가대상은 초등 2~3학년생 40명이며, 친구와 함께 2명씩 짝을 지어 참가해야 한다. 올해에는 색채동화책이 권오준 선생님과 함께 하는 독서

캠프로, 밤샘영화관, 한밤의 놀이마당 등 참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도서관에서의 멋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의 직업체험과,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한 '어린이사서 학교'는 초등 4~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8월 5일 하루 동안 어린이사서로서 도서관리 교육과, 독서력 개발을 위한 활동 등의 소양교육에 참여하고 8월말 까지 10시간의 봉사활동을 원수하면 어린이 사서로 임명되어 올해 말까지 기적의도서관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외에도 초등 1~2학년 대상 그림책 독후활동 프로그램 '그림책과 놀자'와 초등 3~6학년 대상 어린이들을 위한 정읍의 역사문화 인문학 특강 '재미있는 정읍 이야기'가 8월 9일부터 8월 12까지 운영 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12일부터 기적의도서관에 전화 및 방문하여 접수 하면 된다.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는 반드시 부모님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http://jmlib.jeongeup.go.kr/)를 참고하거나 ☎063.539-645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3200만원 확보... 도내 최초 조경농가에 예방 약제 지원

정읍시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으로부터 정읍 명품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방제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3천200만원을 확보해 전북도 최초로 조경농가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지원했다. 또 지난 2007년과 2014년 재선충병이 발생한 임실군과 순창군 인접 지역인 산내면과 산외면 주요 도로변 중심의 지상 방제 위주에서 벗어나 이달부터는 소나무 임지 내 연막소막도 실시하고 있고, 예찰 방제단도 4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김생기 시장은 "정읍은 전국 제일 명품소나무의 본고장으로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소나무 재배농가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정읍 소나무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나무재선충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접지역(임실군 2007년, 순창군에 2014년)에서의 재선충병 발생에 따라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매년 2월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주민 교육은 물론

읍면동에 소나무 재선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올 봄 산림청 항공대의 헬기를 이용한 항공에발을 실시했고, 병해충 방제단을 활용해 관내 소나무 고사목 찾기에 총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 감염의심목 205본에 대해 시료를 채취,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미감염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행락객 등산객들이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가동, 올해 현재까지 20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역시 재선충병이 아닌 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단체 등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원불교 부안지구, 국가유공단체 위문금 전달

원불교 부안지구(지구장 호태원 탁해진 교무)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단체 등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원불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부안지구는 지난 4~5월 근 현대사 100년 해원·상생·평화·화합 합동 위령제를 49일 간 모셨으며 합동 위령제 동안 모이는 재비 600만 원을 부안지역 호국 보훈단체와 서해해리호 사교 유족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간 부안지구는 지역민들을 위한 대각구수(구수 1000그릇) 무료 나눔

잔치와 지역 군부대 북 카페 증정 및 도서나누기, 사랑의 연탄 3000장 및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사랑나눔을 실천해 왔다.

부안지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위령제를 통해 모였던 후원금을 나누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단체와 가족이 억울하게 희생되신 유족들을 지낸 분의에 맞는 해원·상생·평화·화합을 직접적 실천함으로써 그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덕천면, 인구15만명 회복 캠페인

정읍시 덕천면은 지난 6일 정읍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기관단체장들 및 직원 등 30여명이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기관단체장들의 모임인 일심회와 함께 한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15만 인구회복을 위한 주요 시책인 노인 친화형 도시개발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강화, 전입 시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함께해요! 정읍 인구 15만 회복'이라는 표어와 함께 지역 내 학교와 농협, 파출소, 우체국 등을 돌며 캠페인을 전개, 정읍 인구 15만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면은 "이후에도 관할 구역 내 고지 원 및 기관단체 직원의 전입 추진과 귀농·귀촌·귀향 등을 통한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기탁금은 최근 고 조합장의 모친 장례식을 치르면서 받은 조의금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조의금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전달했다

고성군 김제농협조합장 장학금 기탁

모친 장례식 조의금 700만원

고(故) 고병년·김순녀 선생 유족이 7일 조의금 7백만원을 김제시립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김제시립장학재단(이사장 이견식)은 7일 고성군 김제농협조합장을 비롯한 고(故) 고병년·김순녀 선생 유족이 시장실을 찾아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조의금 7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기탁금은 최근 고 조합장의 모친 장례식을 치르면서 받은 조의금이다. 장남인 고 조합장을 포함해서 차남 고명근, 삼남 고대

경, 사남 고영완, 장녀 고혜근, 차녀 고혜순, 삼녀 고영원 씨가 조의를 표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조의금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게 된 것이다.

유족들은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해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며 "그것이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기탁 배경을 밝혔다. "어려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김제지역의 학생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상동지구대 여성안전확보 협력단체와 합동 캠페인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상동 지구대는 여성안전 확보 및 4대 사회악을 근절하려고 지난 2일과 6일 2일 동안 관내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정읍사 오솔길 및 상동 일대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상동 지구대는 등산객 및 시민을 상대로 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국민제보 앱(목록자를 찾습니다)' 활

용 신고 및 '여성안심 귀가서비스' 등 여성안전 보호활동을 포함한 범죄 신고 요령과 전 단지를 배부하는 등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상동 지구대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여성안전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 시민이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